

# 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재정지원 확대키로

###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완화 일자리안정자금 우대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근로장려금(EITC),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등 재정지원 확대에 합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매출부진과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근로장려금 및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자영업가구 지원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도 지속 지원하는 한편 특히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지원 금액을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영세업체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의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서비스 업종도 추가하기로 했다.

당정은 업종별 맞춤형 카드 수수료 개편과 세금부담 완화 등을 통해 경영상 비용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우선 연말까지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 카드 수수료를 적용해 최대 1.2%p를 인하하고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수수료를 적용해 0.5%p를 감면하기로 했다.

카드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를 연내에 구축하는 한편, 활용도 제고를 위한 소득공제확대

등의 조치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5%p 확대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조정하는 등 세금 부담 완화책도 마련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지원 확대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등을 통한 수요창출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2조원 규모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초저금리(은행간 단기기준금리 적용·16일 기준 1.98%) 특별대출 1조 8000억원을 공급한다. 자영업자 카드 매출에 연계한 특별대출(1%p 금리인하)도 2000억원을 공급한다.

소상공인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지역신보 보증 공급을 2조원 확대(2018년 18조5000억원→2019년 20조 5000억원)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5400억원 확대(2조700억원→2조 6100억원)한다.

또 온누리상품권 판매규모를 2조원(2018년 1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도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최저임금 결정시 소상공인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게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과 가맹 분야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도 내놴다.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확산보증금 기준을 상향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편의점의 심야영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자율규약을 통해 편의점 과다출점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시 점주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고 가맹본부의 근접출점 등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계약해지 시

에는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이번 대책으로 자영업자에 대해 전체적으로 2018년 대비 2조 3000억원 증가한 약 7조원+α 규모의 지원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자평했다.

한편, 민주당은 시뮬레이션 결과도 내놴다. 민주당에 따르면 편의점의 경우(서울거주, 연평균 매출액 5억5000만원, 종업원 3명,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 가정) 제로페이를 통한 수수료감면 연간 90만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 200만원, 일자리안정자금 우대지원으로 72만원 등, 연간 약 620만원 혜택이 예상된다.

음식점의 경우(서울거주, 연 매출액 5억원, 종업원 3명,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 가정) 의제매입 세액공제 확대로 인한 연 185만원, 월세 세액공제로 약 75만원, 일자리안정자금 우대지원으로 72만원 등, 연간 약 650만원 혜택이 예상된다. /뉴시스

### NH농협, '파이낸스캠보디아' 출범... 해외법인 첫 인수

NH농협은행이 처음으로 해외 현지 법인인 NH파이낸스캠보디아를 인수했다. 글로벌 진출 후 발주자로 출발한 NH농협은행은 이번 '농협파이낸스캠보디아' 법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글로벌 농업금융 차별화 전략을 펼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캄보디아 중앙은행과 상무부로부터 현지 소액대출법인 SAMIC 인수의 최종승인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주식매매계약을 승인한 이후 한 달 만인 17일 승인을 받은 것이다. 출범식은 다음달 11일이다.

이제 NH농협은행은 캄보디아 3대 도시인 프놈펜, 시하누크빌, 시엠펙을 거점으로 현지 네트워크를 확장한다. 특히 부동산 담보 대출과 중소기업 관련 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인수된 법인은 현재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향후 NH농협은행의 글로벌 진출은 가속화될 예정이다. 베트남 호치민 사무소 개설과 홍콩지점 은행업 인가신청 준비 등 해외영업망 확대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김영태 기자

## 부영그룹, "고객을 모시는 기업으로 거듭난다"

### 1년간 임대보증금 동결 사회공헌 활동 확대 강화

지난 1983년 창사 이후 35년간 임대주택을 공급해 온 부영그룹이 입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세 가지 '상생 방안'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첫째, 최근 하자과 부실시공으로 논란을 빚었던 부영그룹은 하자과 부실시공 없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비상점검단 등을 신설, 사소한 하자라도

끝까지 추적 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둘째, 부영그룹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변시세 및 각종 주거지수 등을 참조해 최대한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관리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각오를 천명하는 의미로 향후 1년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셋째,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 강화하여

고객 및 지역사회, 협력사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최근 하자과 부실시공으로 입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고 임대료 인상 등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부영그룹은 이러한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세 가지 상생안을 통해 윤리경영을 실천, 고객을 모시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농협은 제19호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 폭염도 못막은 '깍연' ... 7월 담배 판매, 전년비 200만갑 ↑

폭염이 한반도를 강타한 지난달에도 담배 판매량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7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줄어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 담배 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담배 판매량은 3억2500만갑으로 1년 전(3억2300만갑)보다 0.7%(200만갑)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일반 쫄면 판매량이 2억 9400만갑, 아이코스 등 쫄면형 전자담배 판매량이 3100만갑으로 나타났다.

쫄면형 전자담배의 경우 7월 기준 시장점유율이 9.7%로 나타났다. 지난



5월 10%로 정점을 찍은 뒤 6월에는 9.6%로 다소 떨어졌으나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정부는 담배값 인상 이후 판매량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입장

이다. 실제 7월 담배 판매량은 담배값 인상 전인 2014년 7월과 비교하면 20.8% 감소했다. 아울러 1~7월 누적 담배판매량은 20억9000만갑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쫄면형 전자담배의 7월까지 누적 시장 점유율은 9.3%로 집계됐다.

한편 담배 반출량을 기준으로 구하는 담배 제세부담금은 7월 기준 1조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 감소했다. 다만 1~7월 누계는 6조6000억원 수준으로 1년 전보다 0.4% 늘었다. /김영태 기자

## 전북농협 태풍 대비 긴급 현장 점검

전북농협은 제19호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 22일 긴급 대책회의를 하고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태풍 대비 농업인 대응요령과 태풍 이동경로 등을 농업인에게 '실시간 전파' 조치하는 한편, 부서별 조치사항과 대처방안을 점검, 피해예방을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또한, 유재도 전북농협본부장은 송희 무주군지부장, 곽동열 무주농협조합장 이영철 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과 함께 본격적인 수확을 앞둔 무주군 복숭아, 사과 재배농

가를 찾아 철선지주 및 방풍망 설치 상태, 배수로 정비 등 태풍 대비를 위한 농작물 관리사항을 점검했다.

한편, 유재도 전북농협본부장은 "6년 만에 전국을 관통하는 태풍 '솔릭'은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으로 과수나, 벼 쓰러짐, 농경지 침수, 축사 및 시설하우스 붕괴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농협이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피해발생 시 신속 체계적인 재해복구 지원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 홍영표 "지역문제 풀어야 할 속제... 구조적 문제 해결할 것"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당정에서 결정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대해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 문제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속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역 문제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속제다. 지역업자로 분류되지만 저소득임금근로자로 사실상 봐야한다"면서 "천정부지로 치솟는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 등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에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최저임금 인상 탓에만 몰아붙이는 것은 본질을 외면한 비판일 뿐"이라며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야당과 협의해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고 자영업 생태계 개선 방안도 연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영연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사 **하지원**